

미친 전쟁에 맞선 한마디

NO



어떤 내용인가요?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남매는 여느 날처럼 학교에 갔지만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이 마주한 것은 돌아갈 집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에게 아빠를 찾으러 가야 한다며 이것은 '숨바꼭질' 놀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폭죽 소리보다 무서운 폭격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일상이 되어버린 순간 아이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놀이가 아니라, 어른들이 만들어낸 '미친 짓'이라는 것ですよ. 기차역에 늘어선 끝없는 피란민의 줄과 차갑게 닫힌 국경의 문 앞에서, 그리고 오랜 잠에 빠진 자식 앞에서 마침내 아빠는 온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빌어먹을 전쟁!"이라고요. 이 짧고 강렬한 외침은 전쟁을 방관하는 세계를 향한 가장 뜨거운 저항의 메시지입니다.

기본 정보



파울라 카르보넬 글
이시드로 페레르 그림
정재원 옮김
14,000원, 48쪽
2026년 02월 25일



국내도서 > 어린이 > 그림책
국내도서 > 어린이 > 초등 1~2학년 > 그림책
국내도서 > 어린이 > 초등 전학년 > 그림책



#NO #전쟁반대 #반전
#전쟁 #평화 #반전그림책 #미친전쟁 #숨바꼭질



1-2 국어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1-2 국어 9. 겪은 일을 글로 써요

선생님 도움말

이 그림책은 전쟁을 영토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학교와 보금자리를 앗아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자 '미친 숨바꼭질'로 정의합니다. 16년이라는 긴 고뇌 끝에 탄생한 이 작품은 잔인한 묘사 대신 나무 조각, 사다리, 구멍이라는 상징적 오브제를 통해 전쟁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아이들에게 전쟁은 우리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며,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거대한 폭력임을 공감하게 해 주세요.

주인공 남매가 외치는 단호한 "NO!"는 무력감 속에서도 부조리에 눈 감지 않겠다는 가장 강렬한 평화의 의지입니다. 아이들이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비극을 향해 당당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의 용기'를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책의 내용을 예측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야기해 보세요.

- * 제목을 보며 이 그림책이 말하고자 하는 'NO'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 * 제목 옆에 있는 '미친 전쟁에 맞선 한마디'를 읽고, 주인공이 누구에게 'NO'라고 외치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 * 표지 속 인물은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쟁'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찾아 오려 붙여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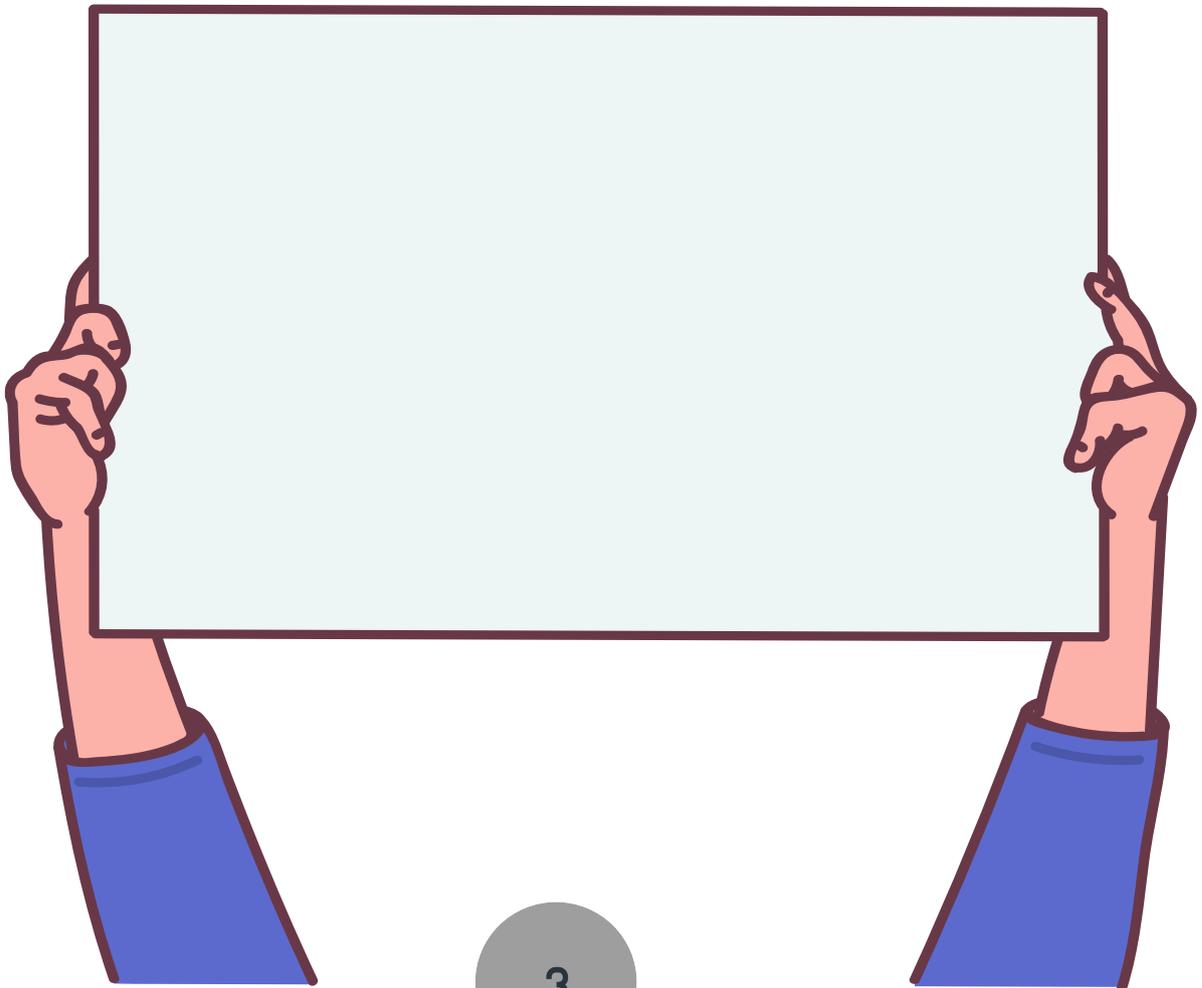


목표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그림책을 읽으면서 다음 질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 *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없고, 선생님이 그냥 집에 가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 * 엄마는 왜 아이들에게 '숨바꼭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 *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멍 속에 빠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 * 우리가 즐겁게 하는 놀이인 '숨바꼭질'이 만약 '살기 위해 억지로 숨어야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다를지 이야기해 보세요.

나만의 'NO' 피켓을 만들어 보세요.



목표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능력을 기른다.

엄마의 '슬픈 거짓말' 사전 만들기

그림책 본문에서 엄마는 전쟁의 상황을 아이들이 아는 단어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이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며 전쟁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해 보세요.



숨바꼭질 -> 폭격을 피해 숨는 일

폭죽 소리 ->

오랜 잠 ->

지구촌 친구들에게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

현재 전쟁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위로의 말을 적어 보세요.